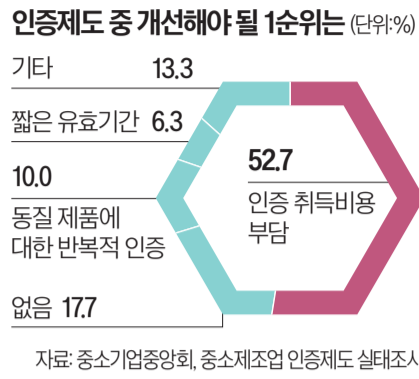


# “정부인증 비용 절반 낮추면 中企 매출 年 15조 늘어난다”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인증의 취득비용이 절반만 줄어든 전체 중소기업 매출이 연간 15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더치연구소는 12일 ‘인증 비용 감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인증 비용을 50% 낮추면 총실질생산,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등이 증가해 중기 매출이 2년간 30조원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중간재 생산량 증가에 따라 대기업 매출도 같은 기간 3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파이더치, 경제효과 분석 중간재 생산량 늘고 가격 하락 中企 52% “취득비용 부담 커”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인증제도 중 개선해야 할 1순위로 ‘인증 취득비용 부담’(52.7%)을 꼽았다. 신규 인증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연평균 비용은 ‘100만~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다. ‘2000만원 이상’이라는 대답도 24.7%를 차지했다. 구자근 국민익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표 4개 시험인증기관(KCL·KTL·KTC·KTR)의 인증 수수료 수입은 연간 5000억원이 넘는다. 2017~2021년 수수료 수입은 2조 2686억원에 이른다.

라 원장은 “인증 비용은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조속히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중소기업연구원

라정주 파이더치연구원 원장은 “인증 비용을 낮추면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이 줄어들어 중간재 총생산량이 증가하고 중간재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며 “이런 가격변수의 변화에 따라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중소기업 수가 크게 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생산량도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번 분석에 ‘동태일반균형모형’(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을 활용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24개 부처를 통해 △KS(표준)인증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약 250개의 법정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중복·유사 인증도 많아 중소기업계에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제조업에 중사하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 삼화페인트, 더위 막는 신제품 출시

차열페인트 ‘쿨앤세이프’ 선보여 삼화페인트공업이 열을 차단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차열페인트 제품군을 강화하며 여름철 기능성 페인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화페인트는 차열페인트 신제품인 ‘쿨앤세이프’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쿨앤세이프는 이 회사의 차열페인트 브랜드인 ‘스피쿨’을 리뉴얼한 제품이다. 열 차단 효과가 뛰어난 안료를 함유해 벽과 옥상에 칠하는 것만으로 여름철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한다. 자체 실험 결과 쿨앤세이프를 표면에 바

르고 20분간 적외선에 노출했을 때 일반 제품은 34.2도로 측정됐지만 쿨앤세이프는 29.2도로 표면온도가 5도 낮았다. 여름철에 이 제품을 바르면 외벽 온도는 최대 40% 낮아진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건축물 옥상·지붕 자재의 태양광 반사와 방사(전자파) 성능을 평가하는 미국 에너지 절감형 도로 인증 기관 CRRC의 인증도 받았다. 삼화페인트는 도로·바닥용 차열페인트인 ‘바이로드쿨’도 선보이며 여름철 기능성 페인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강경주 기자

# 반도체 장비 넘어 태양광·배터리로 영도확장

태양전지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는 태생적으로 전지화(電池化)의 위험을 안고 있다. 자칫 태양전지 패널에서 수집된 태양광이 웨이퍼를 따라 후면까지 흐르며 단락되기 쉬워서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웨이퍼 가장자리에 절연을 위한 에칭 공정을 필수적으로 시행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중견기업 AP시스템은 한화큐셀로부터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엣지 아이솔레이션’ 장비를 수주하며 태양광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김영주 AP시스템 대표(사진)는 “핵심 성장 동력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장비의 레이저 기술력을 태양광 분야에 접목했다”며 “미국 주택 및 산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인 한화큐셀에 연내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사가 공급할 태양광 장비는 ‘꿈의 태양광’으로 불리는 ‘탠덤 셀’ 방식의 태양전지 제조라인에 적용될 예정이다. 탠덤 셀은 기존 실리콘 셀 위에 차세대 태양광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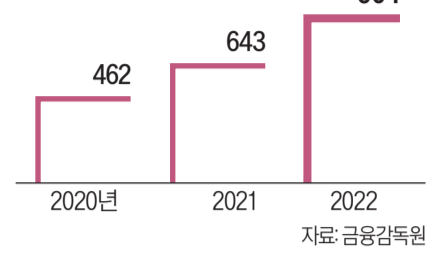
## 김영주 AP시스템 대표

한화큐셀에 태양광 장비 납품 2차전지사와 450억 공급 계약 “신재생에너지 사업 성과 나올 것”

쌓아 만드는 전지다. 한계 효율이 기존 실리콘 단일 셀 대비 1.5배 높은 44%에 달해 태양광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평을 듣는다.

AP시스템은 최근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에도 깃발을 꽂았다. 지난해 말 2차전지 기업과 150억원 규모의 2차전지 제조 장비 첫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3월 또다시 300억원 상당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차전지 분야에서만 반년이 안 돼 450억원어치 일감을 확보했다. 레이저를 이용해 전극을 가로로 재단

## 늘어나는 AP시스템 영업이익 (단위:억원)



한 뒤 V자 홈과 양극, 음극 탭을 만드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제작해 공급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2023년은 전기차용 2차전지와 태양광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장비 사업이 실적으로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디스플레이용 OLED와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사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핵심 성장 동력인 OLED 장비 수요도 예년보다 견조하다는



분석이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정보기술(IT)용 8세대 OLED 라인 구축에 4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OLED 장비 수요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이 회사가 OLED 기관 위에 증착된 유기 물질이 물과 산소 등과 반응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유기물에 보호막을 씌우는 ‘봉지’(인캡) 장비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값비싼 OLED 패널이 산소 등과 닿으면 빛을 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전자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암점이 생긴다. AP시스템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티엔마로부터도 최근 같은 OLED 장비를 수주해 제작이 한창이다.

장비 수주 및 공급이 잇따르면서 올해 매출은 작년(4866억원)보다 13%가량 늘어난 5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메리츠증권은 내다봤다. 올해 1분기 매출은 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 늘어난 117억원을 기록했다.

김병근 기자

## “역대급 장마” ... 신상 제습기 출격

올여름 초장기간 장마 전망에 코웨이·신일전자 등 신제품 내놔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가 닥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요 가전업체가 앞다퉈 제습기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제습기가 침체한 가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도 커지고 있다.

12일 가전업체에 따르면 코웨이는 최근 실내 공기 청정과 습도 조절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듀얼클린 제습공기청정기(사진)’를 선보였다. 이 제품의 청정 면적은 30㎡, 하루 제습량은 12.5L다. 제습 성능뿐 아니라 위생 관리, 사용 편의성까지 강화했다. SK매직은 기존 제품 절반 수준 크기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초슬림 제습기’를 내놔다. 제습 용량은 13L로 최대 62㎡까지 이용할 수 있다. 두께는 22cm로 성인 남성 손만 뻗 정도에 불과하다.

신일전자는 ‘18L 상부식 제습기’를 출시했다. 하루 제습량 18L, 물통 용량은 6L에 달해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도 걱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위닉스는 에너지효율 등급을 개선한 ‘뽀송 19L 인버터’와 ‘뽀송 17L’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기업도 관련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LG전자는 듀얼 인버터와 UV LED 살균을 적용한 휘센 오브제 컬렉션 2023년형 제습기 신제품을 출시했다.

가전업체들이 제습기에 힘을 주는 이유는 올해 초장기간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다음달 강수량이 평년(245.9~308.2mm)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40%)이 적을 확률(20%)보다 높다고 전망했다.

e커머스 업체 티몬에 따르면 지난달 제습기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3배 늘었다. 티몬은 “체감 피해가 컸던 지난해 장마 경험에 올해 장마가 장기화할 것이라 우려가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강경주 기자



## 화재 원천차단 ‘소방수 멀티탭’

### ▶ 으뜸 중기

파이터코리아 ‘세이프에스’ 열 감지해 소화제 자동 분사



콘센트 화재 발생 요인은 과부하와 먼지, 수분 결합, 단자의 접촉 불량 등 다양하다. 2013년 설립된 파이터코리아는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화재가 발생하는 즉시 작동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세이프에스’ 자동소화 멀티탭(사진) 제조업체다. 멀티탭은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이동식 콘센트를 말한다.

세이프에스 자동소화 멀티탭은 내장된 자동소화 패드가 섭씨 120도의 열과 불꽃에 반응하면서 자동으로 작동한다. 마이크로캡슐에 담긴 소화약제가 분사돼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식이다. 이 소화약제는 사용 수명이 15년에 달한다. 경쟁사 대비 세 배나 길어 콘센트와 멀티탭의 평균 사용 수명이 상 성능을 유지한다. 과부하 때 전원이 자동 차단되고 일체형 단자대를 적용

해 접촉 불량에 의한 화재 발생도 원천 차단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박중화 파이터코리아 대표는 “소방방재신기술(NET) 및 녹색기술 인증을 받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쿠팡 이천 물류센터 콘센트 화재 이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 공기업은 물론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도 공급했다”고 덧붙였다.

제품군은 매입형, 안전캡형, 노출형, 결로방지형 등 다양하다. 자동소화패드와 콘센트에 붙이는 자동소화패드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26억원으로 전년(15억원) 대비 73%가량 증가했다. 김병근 기자

## 신축빌딩 매각 · 임대

문의
☎ 010 - 5351-2266

### 1. 초역세권 신축 요양병원 매각

위 치	도봉구 도봉동 620-23
대지면적	1532.6㎡
건물면적	5337.14㎡(B2-8F)
매매금액	380억

- ✓ 방학역 초역세권, 8차선 대로변
- ✓ 요양병원, 골프연습장 임차완료
- ✓ 보증금 15억, 임차료 월 9천만원
- ✓ 병원, 골프연습장 성황리 운영중
- ✓ 신축, 10년 임차(잔여기간 9년)

### 2. 신축 사옥용 빌딩 매각

위 치	중랑구 상봉동 125-22
대지면적	623.4㎡
건물면적	2,318.2㎡(B2-6F)
매매금액	165억

- ✓ 상봉동 핵심상권, 중상향 가능
- ✓ 지하 임차완료, 지상층 사옥가능
- 매가의 70% 1금융권 대출가능
- ✓ 3면 주차가능, 버스정류장 앞
- ✓ 신축 사옥 추천, 최고급 마감

### 3. 핵심상권 수익용빌딩 매각

위 치	동대문구 장안동 295-5
대지면적	868.8㎡, 준주거
건물면적	4100.19㎡(B1-9F)
매매금액	215억

- ✓ 장안동 핵심상권 전층임대완료
- ✓ 보증금 10.45억, 임차료 약 월 5600만원, 임차료 인상 가능
- ✓ 11곳 임차인으로 안정적 수익
- ✓ 종종, 법인, 자산가 투자 추천